

망고·파파야·구아바... 이젠 전남이 원산지

농작물 지도 바뀌어...아열대 작물 종류·재배 면적 늘어 사과, 2100년째 강원서만 재배...고랭지 배추 2050년 '0ha'

고흥에서 망고 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작물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강수량의 변화 등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작물의 종류와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일과 채소의 재배 적지와 가능성이 변경되면서 주산지의 의미도 점차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망고는 물론 파파야, 구아바, 레몬그라스 등도 생산돼 수도권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경남과 전북 등에서도 용과와 망고, 파파야 등이, 강원에서조차 멜론과 구아바가 생산되거나 시험재배에 성공했다. 아열대 과일의 한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2000년 10ha 안팎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지난해 120ha를 넘어섰다.

제주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망고는 2001년 7.2ha에서 2011년 22.6ha로 3배 늘었다. 특히 과일보다 채소류의 재배 확장이 두드러진다. 보성에서 아열대 채소인 여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등 시설재배만 가능하면 아열대 작물 재배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열대 작물 중 채소는 강황, 여주, 오크라, 인디언시금치, 공심채 순으로, 과일은 망고, 용과, 구아바, 바나나, 아보카도,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파파야 순으로 재배면적이 넓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토종 작물의 재배지, 생산량 및 품질이 변하고 있다. 2100년경에는 우리나라 사과 재배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월동배추, 겨울 감자,



이들 농촌진흥청이 2013년 개발한 '농업용 미래 상생 전자기후도'의 추정치로, 주요 과수 작물의 총 재배 가능지(재배 적지+재배 가능지) 면적 변동을 예측한 결과 사과 재배지는 이미 많이 북상했다. 1985년 이전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된 월동배추, 겨울 감자는 남부 해안지방에서 많이 재배된다.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20년 4516ha, 2050년 256ha로 급감하고 2090년에는 '0(제로)ha'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사과는 대구', '감귤은 제주',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와 같은 말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예측됐다. 월동배추, 겨울 감자,

이들 농촌진흥청이 2013년 개발한 '농업용 미래 상생 전자기후도'의 추정치로, 주요 과수 작물의 총 재배 가능지(재배 적지+재배 가능지) 면적 변동을 예측한 결과 사과 재배지는 이미 많이 북상했다. 1985년 이전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된 월동배추, 겨울 감자는 남부 해안지방에서 많이 재배된다.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20년 4516ha, 2050년 256ha로 급감하고 2090년에는 '0(제로)ha'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사과는 대구', '감귤은 제주',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와 같은 말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예측됐다. 월동배추, 겨울 감자,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주노동자들의 외침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율성 '인민해방군가' 中 열병식 연주되나

9월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광주출신 정율성(鄭律成·1914~1976)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에서 2400여 명의 군악대를 동원해 '항일군정대학교가', '보위항하', '태행산 위에서', '인민군대(중국군)의 당에 대한 충성' 등 항일전쟁 시기의 노래 30여 곡을 연주한다. 이 중에는 인민해방군가인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을 포함해 정율성 작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정율성을 "중국의 걸출한 작곡가이자 저명한 국제주의 전사-중국 무산계급혁명음악사업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부르며 '혁명음악의 대부', '군가의 아버지'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광주 출신으로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에 투신한 그는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뒤 혁명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연안송', '팔로군가', '팔로군행진곡' 등 수많은 혁명음악을 작곡했다. 특히 '팔로군행진곡'은 이후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으로 개명돼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인 1980년대 말 인민해방군가로 공식 채택됐다.

정율성은 북한의 공식 군가인 '조선인민군행진곡'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두 나라 군가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영웅 모범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정율성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시돼왔다. 그가 북한, 그리고 한국전쟁과 깊은 관계를 맺은 탓이다. 1945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그는 조선음악대학 작곡부 부장 등으로 근무했고, 한국전쟁 초기 중공군 창작팀으로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발발 수개월 뒤인 1950년 9~10월 중국으로 귀국해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그의 아내 덩쉐송(丁雪松)은 신중국 최초의 여성대사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정율성 탄생 100주년(2014년)을 계기로 한중 양국에서는 기념 음악회 등 관련 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는 등 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양국은 정율성의 삶을 소재로 한 공동 콘서트 제작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초대원장 재공모...12명 응모

추천위, 내일 2명 이사회 추천

적합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간 광주·전남연구원 초대 원장 재공모에 12명이 응모했다. 다만 지난 공모에서 결선에 올랐던 3명은 이번 재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마감한 재공모에 허승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

장, 석동원 전 흥공총연사, 신창선 전남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 12명이 응모했다. 원장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에 들어가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원장추천위는 광주·전남 시·도와 의회에서 각 2명씩 8명, 이사회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1명을 내정하면 광주시의회와 전

남도의회는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5명과 시도 단체장이 추천한 선임직 이사 14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사장은 김수상 성균관대 석좌교수다.

애초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적임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연구원 출범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에는 7명이 응모, 이 가운데 3명이 이사회에 추천됐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적조경보 전남에 국비 3억원 지원

여수, 고흥, 장흥, 완도 등 전남 4개 시·군 앞바다에 적조경보가 발령되면서 전남도가 방제선을 투입해 황도 살포에 나서는 등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2900여가가 우려, 광어 등 117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가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

부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경남 9억원, 전남 3억원, 경북 2억원, 울산 1억원이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처음 출현해 확산된 이번 적조는 전남 완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통영과 거제, 남해와 포항지역에서 어가 44곳이 적조 피해를 입어 어류 134만

마리가 폐사해 약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적조 방제를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 경북도 등 지자체별로 선박 1만1000여 대와 인력 2만5000여명을 동원해 모두 4만 여 t의 황도를 살포할 계획이다.

완도~고흥 해역에는 지난 17일 적조주의보, 지난 26일 적조경보가 각각 발령됐으며,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적조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5-2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교육일시(총100시간) ▶ 10월 12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향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 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61027

"성경일독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구약 과정 신약 과정**

교육일시 9월 24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구약, 신약 각 12주 과정]

교재 구약 성경방위크북(이메일) 신약 성경방위크북(이메일)

강사 김경현 교수 외 광신대학교 외래교수, 생터성경사역원 본부장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公認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1)	광주교육대학교(12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고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2(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02(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감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감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062)260-3582~4 · 지도교수(선병영):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062)260-4243 · 지도교수(선병영):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